

20장. 바스홀의 학대와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

2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6절은 성전의 최고 관리자인 바스홀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를 차꼬에 채워서 하루를 불법으로 감금한 사건에 대하여 말한다.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스홀에게 ‘마굴 밋사뵈’ 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은 ‘사방으로부터 위협’이라는 뜻이다. 바스홀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던 유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20:1-6).

둘째 부분은 그러한 고초를 겪은 예레미야가 자기의 고뇌를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길과 거짓 예언자가 유혹하는 길이 대비되고 있다. 예레미야는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의 독백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한다(20:7-13).

셋째 부분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일 뿐 아니라 장차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서 이러한 탄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20:14-18).

1. 바스홀의 감금과 예레미야의 예언 (1-6절)

- 1 임멜의 아들이고 여호와의 집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 2 바스홀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차꼬] 여호와의 집에 있는 ‘베냐민의 위쪽 문’ 근처의 차꼬에 채워 두었다.

바스홀은 제사장인데, 총감독으로서 성전을 수호하는 일을 하였다. 그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에 와서 하는 것을 보고서 막으려고 하였다. 그는 두 가지로 예레미야를 막았다. 첫째, 그는 예레미야를 때렸다. 어떻게 때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친다’는 말의 원어는 죽일 정도로 친다는 강한 말이다. 뒤에 가면 ‘칼로 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 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큰 고통이었다. 자기가 받은 부당한 대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취급된다는 현실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둘째,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윗문 곁의 차꼬에 채워 두었다. 예레미야가 성전 위에 있는 그 문에 묶여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였을 것이다. 또한 밤에는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드리는 찬송도 들렸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부르는 그 찬송을 듣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 3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차꼬에서 풀어 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이름을 바스홀이라 하지 않고 ‘**마굴 밋사뵈**’ 이라 부를 것이다.
- 4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를 네 자신과 네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거리가 되게 하겠다. 또한 그들은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원수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갈 것이고 또한 칼로 **칠** 것이다.
- 5 내가 또한 이 성의 모든 보화를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그 모든 생산품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임금의 모든 보물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들을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 6 그리고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사는 자들은 모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다. 너뿐 아니라 네가 거짓으로 예언해 준 네 **친구들**도 그럴 것이다.’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그 다음날 풀어 주었다. 그 정도면 예레미야를 잠잠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예레미야는 바스홀이 ‘마굴 밋사뵈’ 으로 불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사방의 공포’라는 뜻인데 예레미야서에서는 두려운 현실을 묘사하는 말로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6:25; 46:5; 49:29). 바벨론 사람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을 이러한 이름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는 ‘마굴 밋사빔’을 바스홀에게 적용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바스홀이 그 자신과 친구들에게 공포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여서 눈 뜨고서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공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친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칼에 죽는 것을 보고, 눈을 뽑힌 다음에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39:5-6), 바스홀도 그러한 종류의 고통을 겪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친구들도 칼로 침을 받을 것이다. 전에는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쳤지만, 이제는 그와 그의 친구들이 칼로 침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 4절과 6절에 두 번 나온다. 지금까지는 장차 ‘북방에서 온 나라’에 의하여 침략을 당할 것이라고만 이야기하였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유다를 침공할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4절에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이야기한 후에, 5절에서는 그들의 재물도 탈취를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5절에서는 ‘모든’이라는 말도 네 번 사용한다. 또한 이 문단 전체적으로는 ‘모든’이라는 말이 모두 일곱 번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파괴가 철저하고 완전할 것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냇이나 일곱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러한 숫자로써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들의 보물이 모두 약탈과 탈취를 당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성전의 기물도 모두 옮겨갈 것이며 제사장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거짓으로 예언을 해 준 친구들도 모두 죽을 것이다. 언약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죽는 것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큰 수치 가운데서 죽는 것과 같은 일이다(마 8:12).

예레미야는 바스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다. 그 말에 대하여 그는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였다. 예레미야를 다시 치거나 차꼬에 매달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편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다.

2. 예언자의 고뇌와 찬송 (7-13절)

7 여호와 주님, 주님께서 저를 **꺾시므로**
 제가 **꺾**에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강하시므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온종일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모두 저를 **비웃습니다.**
 8 저는 말할 때마다 부르짖고
 ‘폭력과 파멸’이라 외칩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는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꺾’으로 옮긴 히브리어 단어는 ‘권유’ 혹은 ‘유혹’으로 옮길 수 있다.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7절에서는 ‘권유’로 10절에서는 ‘유혹’으로 옮겼다. 이 동사는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소하면서 사랑으로 권할 때에 이 말을 사용하였는데(호 2:14), 이것은 좋은 의미의 꺾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권유하시는 것도 이러한 용례에 속한다. 자신이 ‘아이’이기 때문에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 놋 성벽이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권유하셨다(1:18). 10절을 보면 가까운 친구들의 ‘유혹’도 있다. 그들의 유혹 혹은 꺾은 예레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다. 그러한 두 가지를 대비시키려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역(私譯)에서는 ‘꺾’이라는 말로 옮겼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여호와와 꺾에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보다 강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그분이 설복하자 예레미야는 그분에게 항복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압도되어 넘어간 것이다. 예레미야는 꺾에 넘어간 자기의 상태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기셨

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와 껌에 넘어간 결과는 사람들의 조롱이다. 그는 온종일 조롱거리가 되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폭력’의 현실을 지적하고 그 결과 그들이 ‘파멸’을 당할 것 곧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받지 않고 조롱하였다. 온종일 치욕과 모욕을 주고, 오히려 예언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다. 폭력과 파멸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자기가 그러한 폭력의 현실을 대면하게 되었다.

9 ‘내가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
제 심장에 불붙는 것과 같은 것이 있고
제 뺨속에 갇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기에 지치니
이길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건널 수 없었다(시 39:1-2). 여호와께서 자기를 예언자로 꺾면서 주신 ‘소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호와와 말씀은 불과 같아서(23:29; 5:14), 그것을 억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주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

10 참으로 많은 무리의 수군거림을 듣습니다.
‘마굴 밋사뱃!’
너희는 말하라. 우리도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가까운 친구들도 모두 제가 넘어지나 지켜봅니다.
‘혹시 그가 껌에 넘어가면
우리가 그를 **이긴 것이니**
우리가 직접 보복하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10절에 ‘사방의 두려움’ 곧 ‘마굴 밋사뱃’이라는 말이 나온다. ‘마굴 밋사뱃’은 여호와께서 바스홀에게 주신 이름인데, 성전의 감독관인 바스홀은 사람들을 잘 조직하여서 그 이름을 예레미야에게 되돌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에게 주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돌려주면서 그를 조롱하는 것이다.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마굴 밋사뱃’이라는 원 단어를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로 번역하였다. 물론 사방에서 두려움을 몰고 오면서 공격하는 것을 표현한 말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마굴 밋사뱃’이라고 부르며 공격한 사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바스홀을 책망하시며 주신 그 이름을, 바스홀은 오히려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레미야에게 적용해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나오면서, 예레미야를 ‘마굴 밋사뱃, 마굴 밋사뱃’ 하고 부르면서 그를 옥죄어 온 것이다.

10절의 ‘가까운 친구’란, 원어로 ‘나의 살림의 사람’이라는 말로서, 한 식탁에서 먹던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시 41:9. 참조 시 28:3; 미 7:6; 마 10:36). 따라서 ‘가까운 친구’들은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 있으면서 그와 함께 자라났던 자들이다. 이제 그들은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꺾면서 그를 조롱한다. 그들의 껌은 앞에 나오는 여호와와 껌과 대비가 된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꺾어서 이기려고 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보복하려고 한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기신 것과 대비하여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긴다고 한다. 또한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복하겠다고 한다.

11 그러나 여호와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 영원한 **수치**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12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저의 송사를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제게 보여 주십시오.

예레미야의 탄식은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는, ‘누가 이기는가?’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면서 구원해 주시고(1:8), 그를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못 성벽으로 삼아서 원수가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1:19; 15:20)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찬송한다. 원수들은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큰 부끄러움과 영원한 수치를 겪을 것이다.

둘째로, 그는 ‘누가 보는가?’ 에 대해서도 말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깊은 속을 감찰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에는 인기가 없는 일이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바스홀처럼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 라는 의식으로 묶는 편이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맡긴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원망하는 마음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

셋째, 예레미야는 ‘누가 보복하는가?’ 에 대하여서도 말한다. 그는 주님의 보복을 기다렸다. 바스홀은 ‘우리가 보복하자’ 하고 선동하였으나 예레미야는 원수 갚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 원수를 갚는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신 32:35).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신을 ‘가난한 이’ 로 놓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한다.

13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이의 영혼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음이라.

예언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못 성벽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이 있다. 그는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고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찬송을 부르라고 권한다.

3. 예언자의 자기 부정적 고백 (14-18절)

14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15 아버지에게 소식을 알려 준 그 사람,
 “사내아이가 태어났소!” 하고 말하여
 그를 크게 기쁘게 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16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뒤엎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성읍처럼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울부짖음을,
 정오에 아우성소리를 들었더라면!
 17 이는 그분이 나를 모태에서 죽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고
 그 모태가 영원히 잉태하고 있어야 했더라면!
 18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이 수치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가?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부모를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생일과 심부름꾼을 저주하였다.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른 소명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지도 않았다.

이 구절들은 13절의 찬송과 확신 후에 나오는 말이다. 예레미야의 독백이 나오는 7-18절에서 ‘여호와’ 라는 성호와 ‘수치’ 에 해당하는 단어들 각각 7회 나온다. 따라서 14-18절의 탄식도 전체적으로는

완전한 구조 안에서 한자리를 차지한다. 이 부분만 떼어서 해석하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그의 이 탄식은 자기가 당한 현실만이 아니라 그의 ‘소명’ 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모테를 강조하여 말하는데, 이는 ‘모테에서 받은 소명을 피하였더라면……’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1:5). 물론 그 소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뽑고 허물고 전멸시키고 파쇄하며 세우고 심는 일이었다. 그가 전한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는 건설을 위한 일이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태어난 것과 그날을 저주하는 이 말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선언이 두 번 기록된 후에 등장하고 있다.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탄생을 저주하는 것과도 같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두고서 하는 탄식인 셈이다. 앞서 두 번 이야기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수치는, 유다의 기원이 부정되고 사라지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다. 예언자는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자신의 출생까지도 없었더라면 하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나의 날이 수치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가!’ 하고 탄식하였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수치를 겪으면서 사라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한 것이다.

‘나의 날이 수치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가!’ 하는 탄식은 그의 생애에서 분명한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결과 이제 곧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의 존재가 없어지게 될 고통에 자신도 함께 참여하였다. 그 백성의 수치에 동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함락 이후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혀가던 데에서 풀어 주면서 바벨론으로 함께 가면 선대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하였다(렘 39:11-14; 40:4-6). 더 나아가 그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백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 이방 땅에서 죽고 묻혔다.

목상과 실천:

참예언자와 사도가 전하는 복음

1. 참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20장에는 거짓 예언자와 참예언자가 나온다. 거짓 예언자는 영광의 신학을 말하고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없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바스홀과 그 친구들’ 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들은 한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간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지만, 정작 자기의 속을 살피는 데에서는 약하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을 결속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교회 역사에서 반복되었다. 로마교회는 로마교회의 전통과 그들의 역사에 나오는 뛰어난 사람들 곧 성인(聖人)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결속하였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하이델베르크의 선배들은 30문에서, 성인에게서 자기의 구원과 복을 찾는 사람은 유일한 구주와 완전한 구주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로마교회만이 아니라 개신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점은 독립개신교회나 독립개혁장로교회도 주의할 내용이다. 우리 교회들을 세우는 데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훌륭한 두 목사님이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젊은 목사들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결속하고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된 예언자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 와 ‘완전한 구주’ 로 모신 자들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죄와 부족을 주님께 고하면서 살아간다.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대적이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신원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다.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없는 방식이지만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2. 두 가지 대비

예레미야 20장에는 두 가지 뽀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뽀이다. 하나님의 뽀 혹은 권유를 받으면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

둘째는 세상의 뽀인데, 그 뽀에 사람들이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정치만 있고, 거짓과 폭력만 있다.

20장을 공부하면서 18장의 토기장이 비유와 19장의 오지병을 깨뜨린 일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앞의 17장에는 두 가지 길이 나온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대조한다(17:5-10).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길이 생명과 사망으로 대비를 이룬다. 20장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와 뽀와 세상의 뽀 사이에서 어디를 택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3. 소망 중에 고난에 참여함

참된 예언자는 혈육을 의지하는 세상의 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뽀에 넘어간 사람이다. 하나님의 뽀에 넘어간 그는 그가 전한 말씀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서지는 것이 곧 소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꺾실 때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1:10) 하는 소명의 말씀을 주셨다. 예레미야는 파괴와 파멸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함께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주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대로 새로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다.

소망 중에 고난에 참여한 예레미야의 모습은, 첫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뿐 아니라 무리들, 그리고 로마 총독과 군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심히 상하여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수님의 별칭으로 적합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마굴 밍사빱’ 일 것이다. 온 세상이 연합하여 공격하여서 그분의 심히 상한 모습이 ‘마굴 밍사빱’ 과 같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아시면서도 그 길로 가셨다.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하시면서도(마 26:36-46) 그분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히 12:2).

둘째, 바울 사도도 부활의 생명으로 고난을 이겼다. 고난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고린도후서 4:7-12을 보면, 바울 사도는 사망으로 에워싸여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서의 존재감이 없었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전하였다. 사망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 속에서 역사함을 고백하면서 그는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생명이 약동하게 되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 바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동시에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탄식에서 엿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온전하게 본다. 또한 더 나아가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목회 현장에서 일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예레미야를 꺾고 설득하고 이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꺾신다. 이 뽀는 권유고 초청이다. 세상에 이것처럼 멋있는 뽀도 없다.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지만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는 유혹이다. 교만한 죄인이 회개하고 나오게 하는 능력의 일이다. 주님께서 지금 전파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청하고 계신다. 점잖게 표현하면 ‘권유’ 하시는 것이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유혹’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자는 뽀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유혹인 것이다.

20장 익힘 문제

1.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때리고 가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1, 2절)
2.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꺾박한 바스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3절)
3. 바스홀과 그의 거짓 예언을 믿은 가족과 친지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까? (4-6절)
4.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유를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였습니까? (7절)
5. 1)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8,9절)
2)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백성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7, 8절)
6. 예레미야는 자신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 하였습니까? (9절)
7.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꺾박을 당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13절)
8. 예레미야가 그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슬퍼한 것은 그가 무엇을 내다보았기 때문인지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16절에서 찾아서 써 보십시오. (16절)